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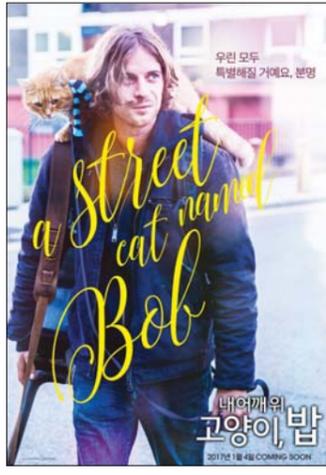


버스킹 음악인과 길고양이... 인생의 두번째 기회 찾다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은 1월 첫째 주 상영작으로 버스킹 뮤지션과 길고양이의 만남 <내 어깨 위 고양이, 밥> 두 여교사의 질투와 파멸 <여교사> 각양각색 쿼어 옴니버스 영화 <걱정말아요>를 5일 전주영화제 작소·4층에서 상영한다.

관객 설문조사 결과 반영 작인 <내 어깨 위 고양이, 밥>은 버스킹 뮤지션 제임스와 고양이 밥이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되찾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다.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랑스러운 고양이 밥과 런던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영상미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한 아카데미가 인정한 데이비드 허쉬 필터 음악감독과 영국의 대표 싱어송라이터 찰리 핑크 등 실력과 제작진들이 참여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2017년의 시작을 따뜻하게 해줄 힐링 영화로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내 어깨 위 고양이 밥' 포스터

▶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1월 첫째 주 상영작 선보여

'내 어깨 위 고양이, 밥'
'여교사'·'걱정말아요' 등
3편 내일 영화제작소서

<여교사>는 계약직 여교사 효주, 정교사 자리를 빼앗은 이사장 딸 혜영 그리고 남학생 재하 세 사람의 관계를 그린 작품이다. 가진 자를 향한 질투, 계약직과 정규직이라는 사회적 갈등이 내재된 작품으로 이를 통해 인간의 감정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영화는 '거인'으로 주목받은 김태용 감독

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배우 김하늘의 과격 연기와 더불어 배우 유인영과 이원근의 열연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영화 <걱정말아요>는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누군가와의 특별한 만남을 그려낸 옴니버스 작품이다. '에타는 마음', '새끼 손가락', '소월길' 세 개의 에피소드를 엮어냈으며 작품은 각각 단편영화로 다수의 영화제에 출품되어 작품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올드 랭 사인, REC 등 쿼어영화를 연출해 온 소준문 감독의 신작 '에타는 마음'은 현대 게이들의 모습을 담았으며, 김현·김대건 감독은 첫 번째 연출작 '새끼손가락'은 첫사랑의 풋풋하고 아련한 감정을 녹여냈다. '소월길'은 신종훈 감독의 작품으로 박카스 아줌마 점수와 여자가 되고 싶은 은지의 만남을 보여준다.

*문의 063-231-3377. /정해은 기자

겨울방학 박물관 학교 운영

전주역사박물관(관장 이동희)은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3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 박물관학교를 운영한다.

이번 겨울방학 박물관학교는 전주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탈 해 특별전 연계 교육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맡게만 느껴졌던 박물관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다탈의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찾기 위해 마련된다.

박물관학교는 병아리떼 쫓종쫓이라는 주제로 10~12일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전주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2만원.
*문의 228-6485~6. /정해은 기자

'자신의 마음으로 얻은 학문을 행해 가는 삶'

"때와 장소에 따라 자신의 타고난 본래 마음으로 널리 세상을 경험하고, 절실하게 묻고, 사유하며 자득하는 학문을 때에 맞게 행하여 가는 삶이라면 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장석원) 서울관에서 오는 9일까지 미당 이필숙의 서전이 열린다.

이 작가는 이번 '학이시습'전에서 선문에서부터 초등학교시절 관심을 갖게 된 서예라는 텍스트에 동기를 부여해 준 작품까지 엮어, 30여년에 걸친 학문·예술적 교감과 소통의 과정 등을 통해 침잠된 작가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전시는 작가가 평소 강조해왔던 학이시습과 열락의 추구에 대한 선문을 비롯해 추사 선생 구를 주된 서제로 구성해 작품으로 담아냈다. 또 전서체와 예서체를 주로 이용하여 작품으로 발현하고 있으며 한글·한문·문인화 등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여 작품화하고 있다.

이필숙 작가는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에서 서예학을 전공(석사)하였고, 동대학

▶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
미당 이필숙 서전, 9일까지

작가 강조 '학이시습'을 비롯
추사 선생 구, 주 서제로 구성
전서·예서체를 주로 이용



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작가는 대한민국의사대대전, 추사김정희선생 전국위원회대회, 추사서예대전 심사위원 등 다수의 심사활동을 하였다.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서화문화연구소 연구원, 추사 김정희 선생 기념사업회 감사, 한국서예비평학회 이사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중학교 미술교과서 집필활동에 참여했고 저서로는 <추사의 서화, 마음으로 쓰고 그리다>가 있다. /정해은 기자

'씨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민속놀이 '씨름'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인정받았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씨름'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씨름은 두 사람이 삼바를 맞잡고 힘과 기술을 이용해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겨루는 경기로서, 한민족 특유의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유구한 역사를 거쳐 현재까지 전승되어 온 고유위 민속놀이이다.

씨름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시풍속 놀이로서, 다양한 놀이의 형태가 오늘날까지 온 국민에 의해 활발히 전승되고 있다는 점, 고대 삼국 시대부터 근대 시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유물, 문헌, 회화 등에서 명확한 역사성이 확인된다는 점, 씨름관의 구성과 기술 방식 등에서 우리나라만의 고유성과 표현미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점, 한국 전통놀이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대상이라는 점 등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정해은 기자

'이슈 도서', 지난 한해 완주군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군, 도서대출 실적 분석 결과

지난해 판타지 소설이 큰 관심을 끈 가운데, 랜섬 리스를 비롯해 기욤 뫼소, 한강 등 이슈로 떠오른 작가의 작품도 완주군민들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완주군은 지난해 중앙도서관을 포함해 삼례도서관, 문산도서관, 고산도서관 등에서의 도서대출 실적을 분석,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30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반 도서 가운데는 판타지 소설인 '달빛 조각사 1편', '명탐정 코난 43권'이 나

란히 1.2위에 올랐다.

이어 자기계발도서인 '미쳐야 공부다: 18시간 공부 몰입의 법칙(강성태 著)'이 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영화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 개봉으로 스타덤에 오른 작가 랜섬 리스의 '할로우 시티'와 '영혼의 도서관'이 나란히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또한 개봉을 앞둔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의 원작자인 '기욤 뫼소'의 2013년 작품 '내일'도 열 번째로 많은 대출실적을 보였다.

이 밖에 한국인 최초로 '팬부커싱'을 받은 '한강'의 장편소설 '채식주의자'와 '정의공주(한소진 著)', '설민석의 무도 한국사 특강' 등도 30위권에 포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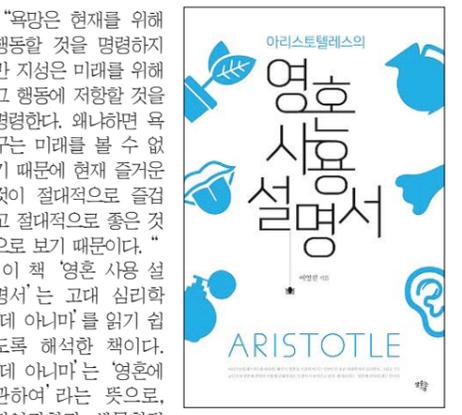
일반 도서에서는 게임 및 무협 판타지 소설이 상위권을 기록했고, 자기계발서도 꾸준한 대출목록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도서는 만화 형태인 'Why? 생명과학', 'Why? 곤충'이 각각 1.2위를 기록한 데 이어, '스페이스 라바 3편', '(신)학교 괴담 2권', '우리는 별거숭이 화가', '수상한 학원', '광합성 소년' 등의 책이 사랑을 받았다. /원주=이중복 기자

▶▶ 신간 도서 ◀◀

'나는 왜 먹는가?'

이영진 '영혼 사용 설명서'



"육망을 현재를 위해 행동할 것을 명령하지만 지성은 미래를 위해 그 행동에 저항할 것을 명령한다. 왜냐하면 욕구는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즐거움이 절대적으로 즐겁고 절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책 '영혼 사용 설명서'는 고대 심리학 '데 아니마'를 읽기 쉽도록 해석한 책이다. '데 아니마'는 '영혼에 관하여'라는 뜻으로, 자연과학과 생물학적 필치로 이루어졌지만 고대 심리학으로 분류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저이다.

"나는 왜 먹는가? 배가 고파서"라고 해도 틀린 답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영혼이 있기 때문에'라는 표현이 옳다. 배고픔보다 앞서 선구조 속에서 영혼이 '영양섭취'라는 운동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영양섭취능력, 감각능력, 운동능력, 욕구능력 등 영혼을 일종의 기능으로 이해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에 관한 기본 명제들을 현대인의 삶의 틀에 맞춰 해석한 저자는 "영혼이란 알 수 없는 저 먼 하늘나라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느끼고 움직이면서 체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 이영진은 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 전공 주임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인문학 지평의 융합 속에서 성서신학을 연구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성과로서 이 책을 내놓았다. 248쪽, 샘솟는기쁨, 1만8500원. /뉴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특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 <2017년 1월 5일>

<p>▷쥐띠 48년생: 금전적으로 이득이 따르는 운이다. 60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타인의 도움으로 해결되는 운이니 큰 걱정은 없는 운이다. 72년생: 경쟁자로 인해 신경을 많이 생긴다. 84년생: 일의 능률이 올라가니 하고자 하는 일의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다.</p>	<p>▷소띠 49년생: 원형을 삼가고 다치거나 아플 수 있으니 건강에 주의하라. 61년생: 구설수, 시비가 따르는 운이다. 73년생: 손재수가 발생하니 투자는 삼가라. 85년생: 빚 사함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니 미리 대비하라.</p>	<p>▷호랑이띠 50년생: 늦게 움직이면 농치게 되니 매사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 62년생: 혼란의 것을 따르기 보다는 큰 그림을 그려라. 74년생: 정신적, 육체적 소모가 심한 운이다. 86년생: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삼가라.</p>	<p>▷토끼띠 51년생: 지나친 욕심은 실망만 가져오게 된다. 6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경쟁자가 나타나 쉽게 결실을 맺을 수 없으니 주의하라. 75년생: 계획을 변경하지만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87년생: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좋은 때가 아니다.</p>
<p>▷용띠 52년생: 편안한 운이니 하고자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다. 64년생: 주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말속에 답이 있다. 76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운이다. 88년생: 편법을 쓰게 되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없다.</p>	<p>▷뱀띠 53년생: 좋은 운세이니 미루지 말고 행동하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 65년생: 타인에게 베풀면 더욱 돌아오는 운이다. 77년생: 처음에는 힘드나 이겨내면 노고에 대한 보답이 있는 운이다. 89년생: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하는 운이다.</p>	<p>▷말띠 5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많으니 때를 기다리며 내실을 다져라. 66년생: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를 얻어라. 78년생: 사물로 인해 힘든 일이 발생하니 사물을 골라 선택해야 할 것이다. 90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p>	<p>▷양띠 55년생: 기쁜 것에 기대해봤자 결실을 맺지 못한다. 67년생: 사소한 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작은 일에 더 신경써라. 79년생: 외부로 확장하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한 운이다. 91년생: 금전관리에 주의하고 중요한 물건은 가지고 다니지 마라.</p>
<p>▷원숭이띠 56년생: 뜻밖의 귀인으로 인해 좋은 결실을 맺으며 행운이 따르는 운이다. 68년생: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지 마라. 80년생: 대인관계에 신경을 쓰면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운이다. 9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능력이 인정받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운이다.</p>	<p>▷닭띠 57년생: 금전거래는 삼가라. 상대가 처음과 나중의 행동이 다를 것이다. 69년생: 이성이나 친구 사이에 실각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81년생: 순간의 감정으로 움직이면 후회할 일이 생긴다. 93년생: 원형을 삼가고 일찍 귀가하는 것이 밝이 없겠다.</p>	<p>▷개띠 46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결실이 있으며 기쁜 일이 생기는 운이다. 58년생: 안정적인 운이다. 70년생: 외부적으로 구설, 시비, 실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82년생: 처음에 손해를 보면 후에 얻게 된다.</p>	<p>▷돼지띠 47년생: 사소한 일에도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운이니 마음을 편안히 가져라. 59년생: 과음, 과식은 삼가라. 71년생: 사소한 일에도 과민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볼 것. 83년생: 서두르지 않는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이다.</p>